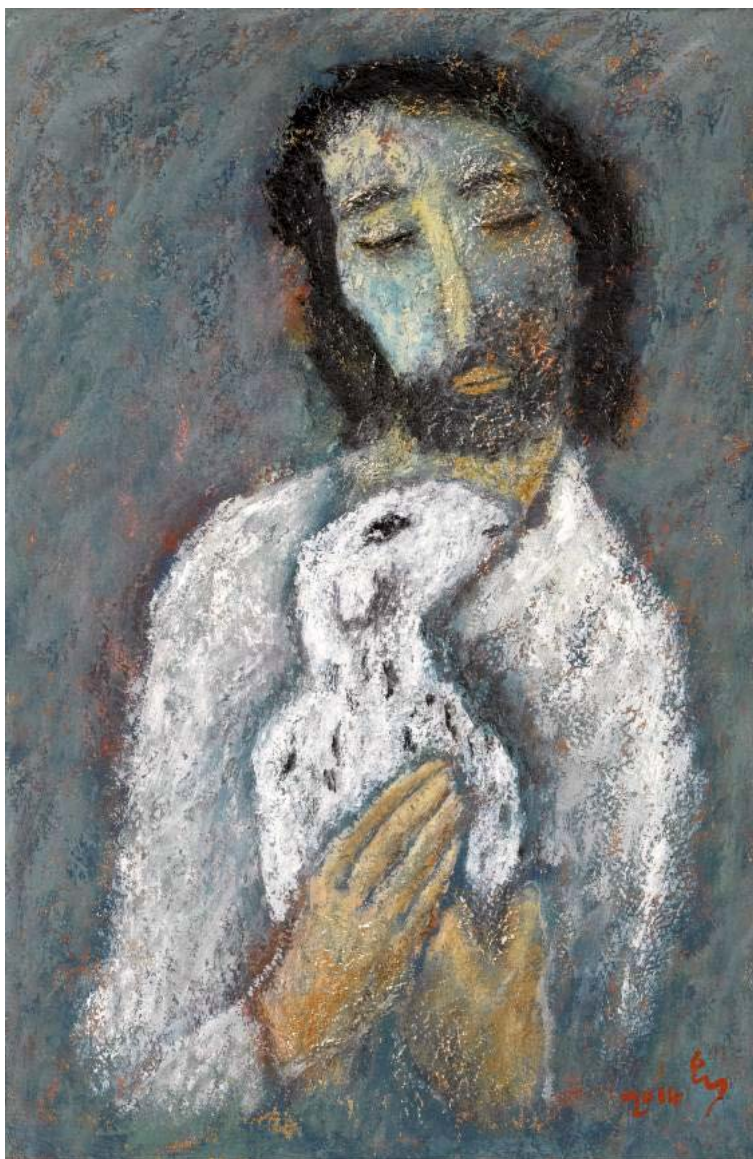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 27-28)



착한 목자, 김옥순 수녀 작

[제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화답송] ..... 시편 100(99),1-2,3,5  
(© 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7,9,14ㄴ-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요한 10,27-3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78] 성체 앞에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 Father Chung's Homily

### “My sheep hear my voice.”

In the Old Testament, God called people to assign special tasks. There are several stages of the calling and answering in these stories: 1. God Himself confronted the person being called (the divine confrontation); 2. God gave the person His words (the introductory word); 3. God gave the person His mission (the commission); 4. The person rejected the mission (the objection); 5. God still gave the person encouragement (the reassurance); and 6. The person finally accepted the mission and God gave him His sign as His promise (sign).

The story of Moses and his calling had the same stages: 1. God brought Moses on the mountain Horeb and called him to fire flaming out of a bush; 2. God gave Moses the mission to bring Israel people out of Egypt; 3. Moses made excuses and rejected the mission; 4. However, God gave him courage and assurance; and 5. God gave him the sign of promise. One thing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God always called individual person for His mission. We also see how difficult to answer God's calling and God always give courage and assurance.

In the Gospel of John, we see the Lord called His people with great intimacy as a shepherd called his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take them out of my hand.” The sheep following the shepherd will have eternal life and shall never perish.

Today is Good Shepherd Sunday, when we ask our young generation to listen to the calling of God and pray for those young people who would answer the calling. Jesus told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abundant but the laborers are few.” As the Lord told us, we should answer the Lord's calling and pray for our young people who answer.

###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소명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불러 소명을 주시는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 특히 헤벨(N. Habel)은 ‘성소사화 聖召史話 Call Narrative’라는 제목으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대상의 인물들은 모세, 판관, 예언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응답하는 과정은 몇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the divine confrontation), 말씀을 하시고 (the introductory word), 사명을 주시지만(the commission),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the objection).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the reassurance) 그들은 결국 응답합니다. 끝으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약속의 표징을 주시는(sign) 것으로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의 단계가 완성됩니다.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도 이와 같은 단계로 전개됩니다. 하느님께서 호렙산 자락의 떨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십니다(탈출 3,4-6).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주시지만(3,10), 그는 하느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습니다(3,11.13; 4,1.10.13).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3,12.14-22; 4,2-9.11-12.14-17) 그가 소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의 표징을 주십니다(4,2-9.17). 이 성소사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실하신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 자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 복음사가도 하느님께서 복음 선포의 소명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마치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처럼, 또 구약의 하느님처럼 양들을 직접 부르시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7-28).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나 판관들,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만나시듯 주님께서도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목자와 양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복음 정신에 따라 자신의 성소를 일깨우고 증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많은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청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특별 성소자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수도자,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성소주일을 맞아 특별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 성소의 어머니인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모든 세례 받은 이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며 교회에 속해 있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성소는 하느님 백성의 품안에서 생겨나며 하느님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으로 성소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토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53차 성소 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적 공동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소 여정에서 공동체가 하는 역할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권유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활동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 삶은 제자직의 부르심을 받아 파견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소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와 성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선교하는 제자들의 삶에 늘 함께합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공동체의 중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나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소를 부여하십니다. 성소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동 성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은 성소는 무관심과 개인주의에 맞서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으로 무관심을 극복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자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하느님 계획에 바치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날, 저는 모든 신자가 성소를 돌보고 식별하는 책임을 지도록 권유합니다.**

**성소는 교회 안에서 생겨납니다.** 성소가 나타날 때부터 적절한 교회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교회적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깨달아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는 성소가 생겨나는 가정과 가족이 됩니다. 성소 지원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중재를 자신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을 사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는 모든 이의 친교를 강화시켜 줍니다.



**성소는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다양한 성소들의 지원자들은 양성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지식을 키워, 누구나 처음에 지니게 되는 제한된 시각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사도적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교리 교사와 함께하여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거나, 수도 공동체와 함께하여 변두리의 복음화를 경험하고 봉쇄 생활로 관상의 보화를 발견하거나,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만민 선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배우거나, 본당 사제와 함께하여 본당과 교구에서 사목 생활의 체험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결정적인 서약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의 성소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봉사 의지, 인내, 평생 교육을 통하여 지속됩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 사람은 교회가 필요로 하면 어디에서든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

사목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사제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제들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 나는 착한 목자이다”(요한 10.7,11). 성소 사목은 사제 직무의 핵심에 속합니다. 사제들은 성소를 찾고 있는 이들과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이미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을 도와줍니다. ...

성소 여정에 있는 모든 이가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지니도록 주님께 간청합니다. 또한 목자들과 모든 믿는 이가 친교와 식별과 영적 부성과 모성을 강화하도록 성령께 간청합니다.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내주시고 당신 성령의 은사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기와 열정과 기쁨이 넘치고, 형제적인 삶의 원천이 되며,

젊은이들에게 당신과 복음화를 위한

자기 봉헌의 원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주소서.

적절한 성소 교리 교육과 개별적인 봉헌의 길들을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노력에 힘을 돋우어 주소서.

성소 식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자비로운 사랑이 모든 것을 비추게 하소서.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돌보신 마리아님의 전구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힘으로 부요해져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참다운 성소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한글학교 소식

동화구연, 나의 꿈 말하기, 시 낭송 대회 열려



지난 9일(토) 재미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 협의회 주최로 동화구연, 나의 꿈 말하기, 시 낭송 대회가 본당 및 하상관에서 열렸다. 정인준 주임 신부의 기도와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워싱턴 지역 21개 한국학교에서 221명의 학생들과 부모님 등 총 40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로 아름다운 시와 동화, 미래의 꿈을 말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확고히 했다.



하상 한국학교에서도 13명이 참가하여, 초등부의 김정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유치부의 윤슬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워싱턴 지역 어린이들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성 정바로 성당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육용영 교감은 “개회식에 오셔서 기도와 좋은 말씀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정인준 신부님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성당 관계자분들과 문화부에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2016년도 주일학교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4일(수) 오후 8시-오후 9시 30분
- 장소 : 하상관 (교실은 추후 안내)

이 간담회는 주일학교 교장이신 성원경 신부님이 주재하시고 본당 청소년 사도회 및 주일학교 실무진, 그리고 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당 주일학교 프로그램 발전에 관심있는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What happened in St. Paul Chung Sunday School?



Fire Drill



Every year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likes to do a fire drill for the Sunday School classes to make sure children and teachers know how to quickly respond to the emergency if necessary. This year we had a fire drill on April 10 at approximately 11:30 am for 30 minutes, and the students did a great job exiting. They were able to return to the building quickly and quietly.

World Day Of Prayers for Vocations April 17



In 1963, Pope Paul VI designated Good Shepherd Sunday as the “World Day of Prayer for Vocations”. Jesus, the Good Shepherd, protects us as his flock and promises us the gift of eternal life. The Church invites us to honor the vocation of all Christians given at baptism. May we

who have dedicated our lives to God through the vocation of marriage, priesthood, diaconate, consecrated life, and the single life remain faithful to our commitments. May those who are discerning their life’s vocation listen to the grace of God to guide them. This year’s theme is “We are God’s people”.

ANNOUNCEMENTS

- 1 **CCD Open Class (For the 2nd semester)**
  - When : April 24 (10 am to 11:15 am)
- 2 **CYO’s Annual Spring Lock In**
  - When : 7 pm Friday, April 22 – 9:30 am Saturday, April 23 at Multipurpose room
  - Contact : Narae Kim (703) 973-6658
- 3 **St. Paul Chung Sunday School hosts Annual Conference**
  - When : May 4, 2016 (Wed 8pm-9:30pm)
  - Where : Hasang building (TBA)
- 4 **First Communion Class Workshop**
  - When : May 7, 2016 ( Sat 2pm-4pm)
  - Where : Hasang building

사제로 살아가다보면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자녀들의 냉담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이가 성당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예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 그룹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새롭게 편집한 책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읽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제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종종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래서 성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미사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느님 앞으로 가기 마지막 순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책에서도 말합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일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언제나 항상 모든 시대에 있어서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힘겨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지 않게 둘 부모도 없을 것이고,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놀게만 둘 부모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조금 싫어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는 신앙이라는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꼭 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성당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제나 수도자, 교리교사들이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 교육의 책임은 본당의 사제, 수도자, 그리고 교리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의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그 중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당에서 교육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요? 토마스 그룹은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신앙 교육 접근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때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활동에 기반을 둔다고 합니다.



“신앙 교육의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는 의미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듯이 부모도 아이들이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주제를 통해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삶 혹은 신앙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이란 이성, 기억, 상상력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녀의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의미 있고 설득력 있게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못지않게 부모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못할까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서로 배워나간다면 되고, 또 하느님께서도 자녀로부터 좋은 배움의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과 지혜를 삶에 내면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과 지혜를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자녀들 자신입니다. 부모는 늘 함께하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토마스 그룹이 말하듯이 저자가 만든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미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취해야 할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한 권의 책 소개와 짧은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나 학원을 다녀와서 어머니가 안계시면 당연히 성당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기도와 봉사를 하였고, 또 그 모습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기도해라’, ‘성당가라’는 말보다 더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토)에 열린 소공동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복음 말씀(요한 21,1-19)을 되새기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비엔나 구역 1반

### “베드로의 주님 사랑 고백”



정창조(루도비고) 형제 집에서 6가정의 구역식구 외에 타 성당 교우 2명이 특별히 참석한 가운데 베드로의 주님 사랑 고백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 비엔나 구역 2반

###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체험하는 부활하신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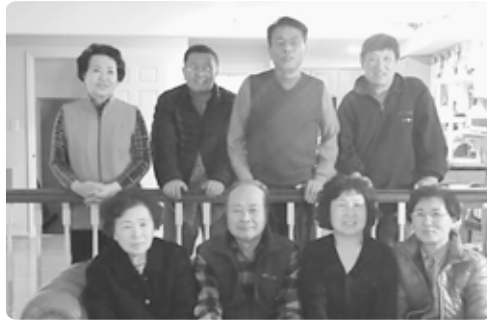
김재연(스테파노), 박효순(마틸다) 부부 집에서 5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 삶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묵상을 나눴습니다. 또한 5월 장터 행사 준비 사항 및 역할 분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장터행사 웃놀이 선수 선발을 겸해 웃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 소공동체 모임 후보 게재 순서

프린스 윌리엄, 우드 브릿지,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애난데일 구역	4월, 7월, 11월
라우든, 웨어팩스 1,2,3 구역	5월, 9월, 12월
버크, 센터빌 구역	6월, 10월

#### 우드브릿지 구역

### “주님을 따르려면...”



김홍자(아네스) 자매집에서 6가정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한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기도와 성경 공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심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 알렉산드리아 구역

###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



황원봉(베드로) 형제집에서 6가정이 참석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물이 넘치도록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모습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일행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김동표(로말도) 형제가 아버지 학교에 이어 견진성사, 꾸르실로 교육 참석 의사를 밝혀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모든 구역식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 애난데일 구역 3반

### “주님이 아니면...”

빵과 물고기가 상징하듯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육적인 음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주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말씀 나누기를 하며 뜻깊은 4월 모임을 보냈습니다.

#### 프린스 윌리엄 구역

###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선물”



이상민(이냐시오), 이미숙(베로니카) 부부집에서 16명이 참석,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못믿어서가 아니라,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을 완전히 씻겨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또한 신앙은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각자에 맞게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체험도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 비즈니스를 오픈한 김경례(메리토) 형제에게 큰 박수로 개업을 축하해 줬습니다.

#### 애난데일 구역 2반

### “예수님의 다정다감한 자비”

애난데일 노인아파트 컴퓨터실에서 8가정이 모여 예수님의 다정다감한 은혜와 자비를 묵상했습니다. 153마리가 상징하는 의미, 온 세계 만방의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6월에는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소공동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4월 레지오 마리아 꼬미시움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4월 꼬미시움(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가 10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묵주 기도, 회의록 낭독, 상급평의회 소식, 사업보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43명의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월례회의 후 가진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 회의에서는 4월 말부터 진행될 가두선교와 묵주 만들기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1 하상회 모임**

· 일시: 4월 17일 (일) 오전 11:30 (B-3, 4)

**2 안나회 모임**

· 일시: 4월 17일 (일) 오전 11:30 (A-1, 2, 3, 4)

**3 Qua Vadis (성소자 모임)**

· 일시: 4월 17일 (일) 오후 12:45 (B-3, 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4월 17일 (일) 오전 11:40 (하상관 B-4, 5)

**5 베드로회**

· 일시: 4월 17일 (일) 오후 1시 (B-1,2)

**6 울뜨레아 정기 모임**

· 일시: 4월 22일 (금) 미사 후 친교실 (B-1,2)

**7 안나회 모임**

· 일시: 4월 17일 (일) 오전 11:30 (A-1, 2, 3, 4)

**8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일시: 5월 21일 (토), 5월 22일 (일)  
 · 불우 이웃 돕기 일환으로 야드세일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물품 기증: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동훈 요한 (703) 585-2700

**9 교육부 영성 세미나(동영상)**

· 일시: 4월 24일 오전 11:30 - 오후 1시 (친교실 A-1,2)  
 · 주제: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 대특강 / 무지개 원리(절대 희망)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10 M.E 미 동북부 제71차 주말 부부 모임**

· 미 동북부 M.E에서 주말 부부 모임을 초대합니다.  
 · 접수: 친교실 미사후  
 · 일시: 5월 28일 (토) 오후 7시 - 5월 30 (월) 오후 5시  
 · 장소: Wyndham Garden Hotel Newark NJ  
 · 문의: 김영술 김생금 부부 (703) 477-2446, 노응홍 노월승 부부 (973)255-7344

**11 유아세례**

· 일시: 4월 24일 (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4월 2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 요한회**

· 일시: 4월 24일 (일) 오전 11:30 (B-1, 2)

**13 2016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5월 7일 (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참가 등록: 친교실 (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하진 (703) 376-1372

**14 파티마 세계 사도직 가정 순례**

· 순례 신청: 4월 17일, 4월 24일  
 오전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순례 기간: 2016년 5월 1일 (일) ~10월 30일 (일)  
 · 문의: 김만식 (703) 403-1185

**15 선교부 봉사자 모집**

· 새신자 교육 봉사 (매주 주일, 화요일), 성당 입구 봉사, 친교실 테이블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4월 17일까지  
 · 문의: 유재운 요셉 (703) 628-9314

**16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5월 1일 (일)까지  
 · 준비 서류: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장소: 성당 입구 안내 데스크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17 주일학교 CCD 공개 수업**

· 2학기 공개수업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4월 24일 (일) 오전 10시 -11시 15분

**18 시청각 장비 설치 보조 봉사자 구함**

· 성당 행사 시청각 장비 설치 보조를 도와줄 봉사자 모집  
 · 신청: 4월 17일까지, 회의실  
 · 문의: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19 알링턴교구 다민족 공동체 음악회**

· 음악회 일시: 5월 21일 (토) 오후 5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d, Alexandria)  
 · 문의: 노혜란 (248) 494-6060  
 · 합창 연습: 매주 금요일 8시, 성가대 연습실  
 · 여러 나라 언어로 부르는 다민족 음악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복음서 필사 노트 <9월 18일까지>**



4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 필사 노트를 9월 18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4월 24일(일)부터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4월 21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행복 특강:** 신앙의 눈으로 행복의 비결을 듣는 황창연 신부의 특강 시리즈
- **인물 예세이:** 1970-80년대 가장 인기를 모았던 가곡 '비목'을 부른 주인공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 아네스의 인생 여정

**4월 22일(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4월 10일 (부활 제3주일)

주일헌금	\$7,973.00
교무금	\$10,880.00
교무금(신용카드)	\$3,220.00
특별헌금	\$100.00
2차 헌금	\$0.00
<b>합계</b>	<b>\$22,173.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전례 및 청소 담당**

4월 17일	버크 3
4월 24일	버크 4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철(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티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전성호(세례자 요한),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마카렐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17일(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하상회(11:30, B-3,4), 안나회(11:30, A-1,2,3,4),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 B- 4,5), Qua Vadis(성소자모임, 12:45, B-3,4), 베드로회(13:00, B-1,2), 바오로회(16:00, 친교실)
18일(월)	부활 제4주간	아침 미사(6:00, 성당)
19일(화)	부활 제4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20일(수)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21일(목)	부활 제4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2일(금)	부활 제4주간 금요일	하상 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프란치스코 재속회, 울뜨레아 CLC(20:00), CYO Lock In(9:30)
23일(토)	부활 제4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하상관), M.E 봉사자모임
4월 24일(일)	부활 제5주일	요한회 월례회(11:30, B-3,4), K of C(11:30, B-1,2), 유아세례(15:00, 성당)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대박 월드</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속옷), 신발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융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와 한방나라 이역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b>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Susan Interior</b> 커튼, 블라인드 김수선나 703-981-4296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COLUMBIA COLLEGE</b> 연방정부 학비보조 가능 admissions@ccdc.edu 703-206-050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하얀나무치과</b>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LED Lights</b> 매장창문, 건물라인 쇼케이스 및 진열장 쿨러, 간판, 형광등 설치·판매 773-931-1238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Springfield TOYOTA</b>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b>중미반점</b>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Greenway Funding</b> 주택융자, 채용자 제이슨 리 703-851-5805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H&amp;R BLOCK</b> 세금보고, Fairfax 강필이(아가다) 703-963-1329	<b>Kitchen, Deck</b> <b>Sunroom</b>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확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b>현대 부동산</b> 이창호(어거스틴) 571-455-0768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b>주일 저녁 6시까지</b>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b>성사안내</b>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b>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b> · 주일 : 11시 40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

<b>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b>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b>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b>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b>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b> · (703) 968-3070
--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